

# KINU Insight

2020  
No.4

##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KINU Insight 20-04

#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차 례

I. 논의배경 .....	1
II.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중무역의 변화 .....	3
III. 북중무역의 감소가 북한산업에 미치는 영향 .....	11
IV. 평가 및 전망 .....	18
참고문헌 .....	20
참고 .....	22

# 차 례

## 표 차례

〈표Ⅱ-1〉 북한의 대중 중간재 수입: 주요 반제품 구성 .....	10
〈표Ⅱ-2〉 북한의 대중 중간재 수입: 주요 부품·부분품 구성 .....	10
〈표Ⅲ-1〉 북한 대중수출 변동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	12
〈표Ⅲ-2〉 북한 대중수출 변동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직간접 효과 .....	13
〈표Ⅲ-3〉 수입중간재 의존도 .....	15
〈표Ⅲ-4〉 대북제재 강화 전후 북한의 수입중간재 의존도 .....	17

## 그림 차례

〈그림Ⅱ-1〉 북중무역: 산업별 분류 .....	5
〈그림Ⅱ-2〉 북중무역: 주요 제조업 .....	6
〈그림Ⅱ-3〉 북중무역: 가공단계별 .....	7
〈그림Ⅱ-4〉 북한의 대중 최종재 수입 .....	8

## I 논의배경

### □ 대북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 2016~2017년 중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대북제재 유용론은 시장화의 진전과 대외무역의존도 심화라는 북한경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북한경제가 무역감소의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sup>1)</sup>
- 이와 반대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가 일정 부분 내구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견해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이루어진 경제개혁 조치의 성과에 주목<sup>2)</sup>
- 또한, 대북제재의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나 그 영향이 아직까지 제한적이라는 견해들은, 수출입 금지조치가 취해진 부문 이외의 다른 부문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데 주목<sup>3)</sup>

○ 2019년 말 기준 북한경제 현황을 평가한 연구들에 따르면, 대북제재의 영향은 부문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sup>4)</sup>

- 대북제재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광업·중화학공업 부문에 집중된 반면, 식량 및 에너지 수급 등의 측면에서는 대체로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through)를 지속
- 즉,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산업생산 및 시장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나 북한경제가 1990년대와 같은 경제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

1) 김병연,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와 제재유용론,” 『이슈브리핑』, No. 22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7), p. 2.

2) 이종석·최은주, 『제재속의 북한경제, 밀어서 잠금해제』 (세종연구소, 2019), pp. 21~41, 81~84.

3) 홍제환, “북중무역통계로 본 대북제재하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9), p. 81; 정형곤, “2019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 효과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0), pp. 65~67.

4) 이석, “총론, 2019년 북한의 거시 경제 평가와 2020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한국개발연구원, 2020), pp. 9~12.

- 본고에서는 북중무역의 감소로 나타난 무역충격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토대로 대북제재의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함.
  - 산업연관분석은 산업 간 거래를 고려함으로써 특정 산업에 대한 수요·공급 제한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 또한, 대북제재에 따른 수출과 수입의 감소를 각각 북한경제의 총수요·총공급 감소라는 측면에서 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무역충격에 따른 북한경제 위기 가능성을 1990년대 초반과 비교

## II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중무역의 변화

### □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중무역 규모의 급감

○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의 무역규모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북한 전체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북중무역 감소에 기인함.<sup>5)</sup>

- 대북제재 강화의 영향으로 2018년 북한 전체 무역액은 전년대비 48.8% 감소한 28.4억 달러를 기록
- 북한의 수출과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86.3%, 31.2% 감소하였고, 무역수지적자는 23.6억 달러로 전년대비 17.5% 증가
- 2014년 이후 북한 전체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해 온 북중무역의 비중은 대북제재 강화 직후인 2018년에는 95.8%까지 증가

○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중무역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중국해관통계를 품목별, 경제적 용도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음.

- 품목별 수출입(HS code 기준)을 살펴보면,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입액은 큰 변화가 없음.<sup>6)</sup>
  - 수출의 경우 제재로 중단된 북한의 기존 수출품(농수산물, 광산물, 의류)을 대체할 만한 상품을 찾기 어렵다는 점, 수입의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입을 줄여야 할 만큼 외화부족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
- 경제적 용도별(BEC code 기준)로 대중수입을 살펴보면, 제재 대상 품목의 비중이 높은 자본재 수입에 비해, 중간재·소비재 수입의 감소폭은 제한적<sup>7)</sup>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8 북한의 대외무역동향』(2019), p. 3, pp. 14~15.

6) 홍제환, “북중무역통계로 본 대북제재하 북한경제,” p. 81.

7) 정형곤, “2019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 효과를 중심으로,” pp. 58~59.

- 본고는 북중무역 변화가 북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국해관통계(한국무역협회 제공)의 품목별 분류를 산업별·가공단계별로 재분류하였음.
- 품목별 분류(HS code 기준)를 산업별(ISTANS code 기준<sup>8)</sup>)로 재분류함으로써 북한수출 감소에 따른 산업별 총수요 감소 효과, 북한수입 감소에 따른 산업별 총공급 감소 효과를 분석
- 또한 BEC code에 포함된 가공단계별 분류를 적용<sup>9)</sup>하여 북한수출의 생산우회도와 산업별 수입중간재 의존도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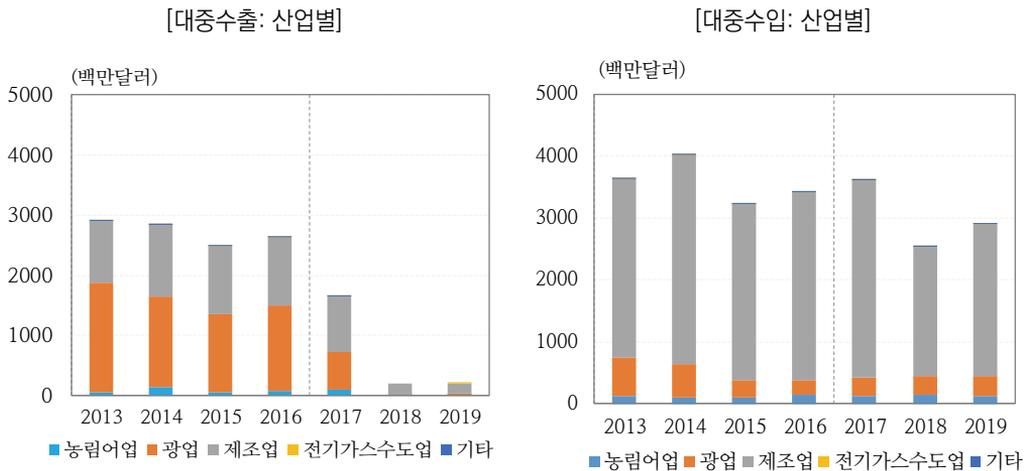
8)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중국의 대북 수출입 자료(HS 6자리 기준)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Industrial Statistics Analysis System) 연계코드를 이용하여 산업별로 분류한 것임. 산업통계분석시스템은 국내외산업의 통계정보를 연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의 주요 산업을 40개 제조업, 20개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www.istans.or.kr](http://www.istans.or.kr)).

9) 대북수출입 자료(HS 코드6자리 기준)는 유엔이 제공하는 HS-BEC 대응표(<https://unstats.un.org/unsd/trade/classifications/correspondence-tables.asp>, 검색일: 2020.3.26.)를 이용하여 변환. BEC 코드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기본 분류에 따라 중간재(1차산품/반제품/부품·부분품)/소비재/자본재로 구분하였음.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Classification by Broad Economic Categories Rev.5"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18), <Table 1.1>, p. 2. 참조

□ 산업별로 살펴보면, 대북제재 강화는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충격<sup>10)</sup>

- 대북제재 강화 전후 북한의 대중수출은 90% 이상 감소하였으나, 대중수입 감소는 20% 정도에 그침(2018/2019년 평균을 2015/2016년 평균과 비교).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의 금수조치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입제한은 원유·정제유 수입 상한부과 및 산업용기기·운송기기 등에 국한
  - 2018년 이후 대중수출은 2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한 반면, 대중수입은 기존 수입의 80%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대중 무역수지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
-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제재로 기존 대중수출의 대부분을 구성하던 광업과 제조업부분 생산에 대한 충격이 컸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중수입은 제조업 위주로 감소
  - 대중수출 가운데 광업은 무연탄 등 광산물, 제조업은 의류 등 위탁가공제품에 해당
  - 광업부문 대중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는 기존 수입규모를 유지

〈그림 II-1〉 북중무역: 산업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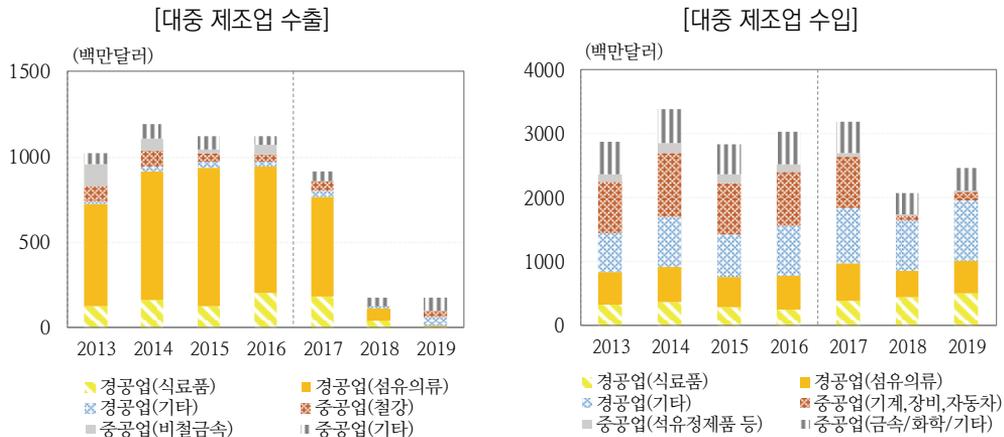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검색일: 2020.3.26.).

10) 대중수입에서 2014년 이후 중국해관통계에서 누락되어 있는 원유(HS 270900)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추정치를 적용하여 추가(가공단계별로는 1차 산품, 산업별로는 광업에 해당)하였음. 2019년 원유수입액 추정치는 미 발표된 관계로 2018년 추정치 적용. 또한 본고의 북중무역 분석은 상품무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제조업에서 경공업의 대중수출, 중공업의 대중수입 급감이 뚜렷
- 대북제재 강화 이전 제조업 수출에서는 섬유류, 식료품 등의 경공업 비중이 높은 반면 제조업 수입에서는 경공업과 중공업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경공업의 경우 수출은 최종재 형태의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은 섬유류 중간재, 식료품, 기타소비재 등으로 다양
- 대중 제조업 수출의 경우, 대북제재 강화 이전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섬유류뿐만 아니라 식료품 수출도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섬유류와 식료품·농산물 수출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2397호) 채택에 따른 영향으로, 시차를 두고 실행됨에 따라 2018년에는 섬유류, 식료품 수출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2019년에는 중단
- 대중 제조업 수입의 경우, 경공업 제품의 수입은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공업 제품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산업용기기, 운송기기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중공업 제품에 해당하는 기계, 장비, 자동차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sup>11)</sup>

〈그림 II-2〉 북중무역: 주요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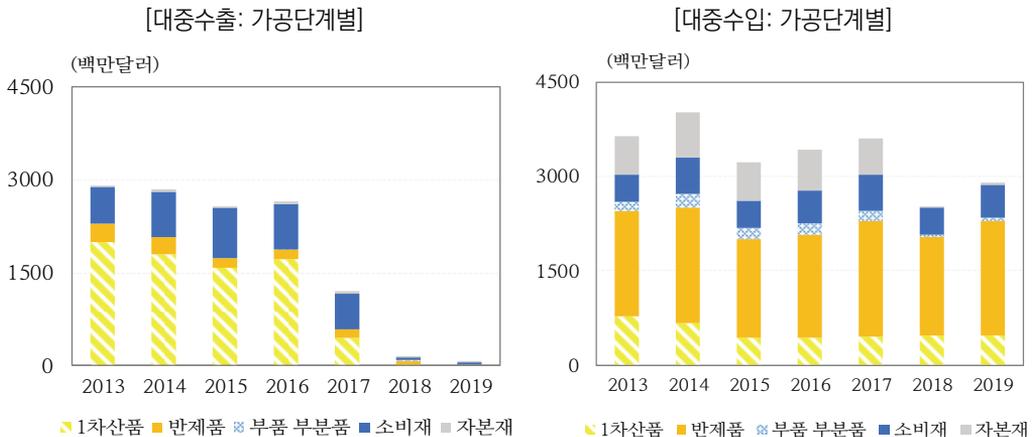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검색일: 2020.3.26.).

11)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에 따르면, 대북제재 강화 이후인 2018년 제조업 성장률은 경공업이 -2.6% 인 반면, 중공업은 -12.4%로 감소폭이 뚜렷(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가공단계별로는 1차산품·소비재의 대중수출과 자본재 대중수입이 급감

- 대북제재 강화 이전 대중수출의 구조를 살펴보면, 생산우회도가 낮은 1차산품과 소비재로 구성
  - 생산우회도가 낮은 1차산품의 수출감소는 여타 산업에 대한 충격이 적은 대신 해당산업의 부가가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
  - 소비재 수출은 대부분 의류의 위탁가공무역으로 대북제재 강화 이후 수출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남.
  
- 대중수입의 경우, 자본재 수입은 급감하였으나, 반제품과 소비재 수입은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침.
  - 특히, 의류수출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반제품 수입이 급감하지 않아 내수용 생산을 위한 수입인지 밀수출을 위한 수입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림.
    - 소비재 수출 중 의복, 의복 액세서리·모피제조업에 해당하는 상품의 수출은 대북제재 직후 95% 감소한 반면 식물제조(의류제외) 관련 반제품 수입은 20% 정도 감소
  - 자본재 수입 중단은 투자 감소와 제조업 부문 가동률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그림 II-3〉 북중무역: 가공단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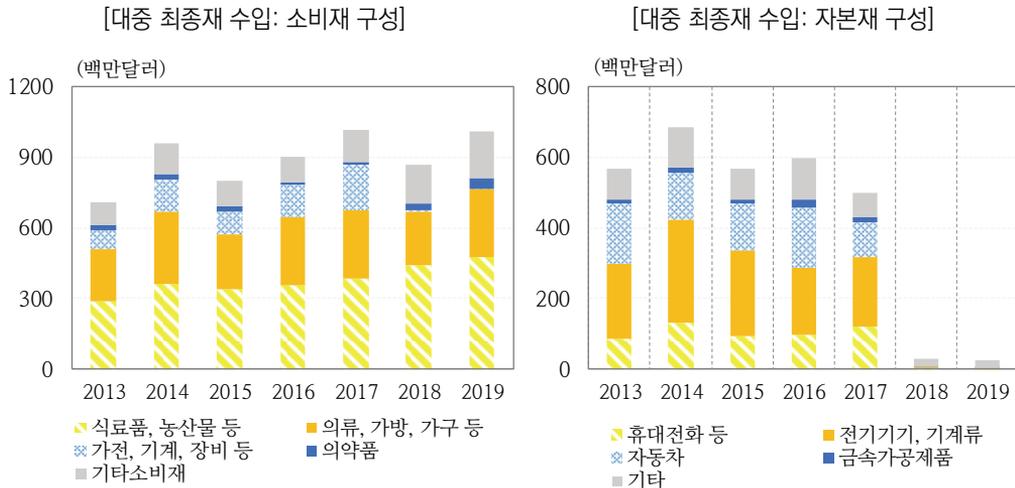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검색일: 2020.3.26.).

□ 최종재의 대중수입 변화

- 소비재 대중수입에서 식료품, 농산물 등<sup>12)</sup>의 수입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식료품, 농산물의 대중수입은 대북제재 이전 약 3.4억 달러(2013~2017년 평균) 수준에서 2018~2019년 평균 약 4.6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
  - 곡물, 곡물가공품을 비롯한 식료품·음료 제조업 수입이 증가한 것은 대북제재 장기화로 인한 충격이 식량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부분적으로 반영
    - 이에 대해 북한이 대북제재 강화 이후 식료품 제조업에 있어서 국산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관련 중간재 수입이 증가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sup>13)</sup>
  
- 소비재 중 제재 대상품목이 포함된 가전·기계의 경우 수입이 중단되었으며, 의류·가방·가구 등의 수입도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4〉 북한의 대중 최종재 수입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검색일: 2020.3.26.).

12) ISTANS 중분류 기준 산업명을 축약하여 표현, 농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식료·음료제조업(11)을 포함

13) 최장호·최유정,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p. 9.

- 가전·기계·장비에 해당하는 품목은 주로 오토바이, 가정용 냉장고, 밥솥 등<sup>14)</sup>으로 대북제재 강화 이전(2013~2017년) 전체 소비재 수입의 14% 정도를 차지했으나 제재 강화 이후 중단<sup>15)</sup>
  - 비중은 작지만 연 1천 9백만 달러(2013~2017년)이던 의약품 수입이 3천 7백만 달러 수준(2018~2019년)으로 증가
- 대북제재로 수입이 중단된 자본재는 자동차, 전기기기, 휴대전화<sup>16)</sup> 등이 해당
- 대북제재 이전(2013~2017년)에 평균 수입액이 가장 높은 자본재 제품들로는 화물차(HS840423), 휴대전화(HS851712), 노트북(HS847130), 전동기(HS850131) 등이 해당
  - 또한 건설장비(굴삭기, HS842952)와 자동식 재봉기(HS845221) 등의 수입도 중단

#### □ 중간재의 대중수입 변화

- 중간재는 반제품, 부분·부분품으로 구분되는데,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수입 감소는 부품·부분품에 집중되었음.
- 전체 반제품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반제품에서 기초화합물, 식료품, 고무·플라스틱, 종이 및 종이제품은 대북제재 강화 이후 오히려 증가
- 기초화합물 반제품의 경우 비료와 합성플레이트섬유 등의 비중이 높고, 고무·플라스틱 반제품의 경우 PVC 바닥재, 문, 시트 등 건축용품의 비중이 높음.
  - 반면,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의 반제품은 9천7백만 달러 감소, 1차 철강 제조업 반제품 수입도 대북제재로 중단

14) 가정용 기기 제조업, 영상·음향·통신기기 제조업,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등이 해당

15) 2013~2017년 중 연4천4백만~8천3백만 달러 수입되던 휴대전화는 자본재에 포함

16) 각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기계 및 장치제조업,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영상·음향·통신기기 제조업이 해당

- 부품·부분품의 대중수입은 주로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기계·장치제조업,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과 관련된 것으로 대북제재 강화 이후 대부분 감소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품·부분품 감소분은 대부분 운송기기와 관련된 타이어 제품 등과 관련

〈표II-1〉 북한의 대중 중간재 수입: 주요 반제품 구성

(백만 달러)

ISTANS 중분류	2013~2017 평균 수입액	2018~2019 평균 수입액	증감액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512.1 (34.8)	439.2 (33.1)	△72.9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30.4 (8.8)	164.9 (12.4)	34.5
기초화학물 제조업	126.5 (8.6)	176.0 (13.3)	49.5
코크스, 석유정제품 제조업	122.0 (8.3)	24.6 (1.9)	△97.4
제1차 철강 제조업	124.2 (8.4)	0.2 (0.0)	△123.9
식품 제조업	61.4 (4.2)	130.8 (9.9)	69.4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5.4 (3.8)	65.3 (4.9)	9.9
합계	1,131.9 (76.8)	1,001.1 (75.5)	△130.8
전체 반제품 수입	1,473.4 (100.0)	1,326.8 (100.0)	△146.6

주: ( )은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검색일: 2020.3.26.).

〈표II-2〉 북한의 대중 중간재 수입: 주요 부품·부분품 구성

(백만 달러)

ISTANS 중분류	2013~2017 평균 수입액	2018~2019 평균 수입액	증감액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59.6 (33.9)	42.2 (93.8)	△17.4
기계 및 장치 제조업	52.0 (29.6)	0.7 (1.5)	△51.3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0.5 (11.6)	0.3 (0.6)	△20.2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20.2 (11.5)	0.2 (0.4)	△20.0
합계	152.2 (86.5)	43.3 (96.2)	△108.9
전체 부품·부분품 수입	175.9 (100.0)	45.0 (100.0)	△131.0

주: ( )은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검색일: 2020.3.26.).

### III 북중무역의 감소가 북한산업에 미치는 영향

#### □ 북중무역 감소의 산업별 파급경로

○ 대외무역 감소는 북한경제의 총수요(수출)와 총공급(수입) 감소를 의미하며, 품목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달라짐.

- 북한의 무연탄 수출 감소는 광업부문에 대한 수요 감소를 의미, 이는 광업부문에 투입되는 다른 산업에 대한 수요 감소로 파급되어 광업 및 관련 상업의 생산 감소로 귀결(후방연쇄효과)
- 북한의 기계 부품·부분품 수입 감소는 중공업 중간재 공급 감소를 의미, 이는 기계 부품·부분품 투입을 요하는 관련 산업에 대한 공급 감소로 파급되어 중공업 및 관련 산업의 생산 감소로 귀결(전방 연쇄효과)

○ 이 장에서는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중무역의 산업별·가공단계별 변화가 북한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아 개도국(캄보디아, 베트남) 산업연관표<sup>17)</su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북한은 산업연관표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들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실제 북한 산업의 투입구조가 이들 국가와 상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

#### □ 대중수출 감소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효과<sup>18)</sup>

○ 대중수출액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분(19억 달러)은 2017년 북한의 부가가치(173.7억 달러, 유엔추정치 기준)의 8.2~8.9%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sup>19)</sup>

17)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1인당 소득과 제조업GDP 비중 측면에서 북한과 비교적 유사한 국가임. 북한, 캄보디아, 베트남의 산업별 GDP 비중 등에 대한 비교는 <참고 1> 참조. 본고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이 추정하여 발표하는 캄보디아의 산업연관표(2010년, 2017년)와 베트남의 산업연관표(2007년)를 이용하였음. <data.adb.org> (검색일: 2020.2.4.).

18) 대중수입 축소 및 여타 국가와의 교역 변동은 고려하지 않은 것임.

19) 유엔의 북한GDP 추정치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1인당 소득을 696달러로, 북한의 소득수준이 실제보다 과소평

- 대중수출액 감소는 2015~2016년 수출액 평균과 2018~2019년 수출액 평균의 차이
- 대북제재 강화 이후 대중수출 감소가 두드러진 산업부문은 1차 산품(무연탄, 농수산물)과 위탁가공상품(의류)으로, 대중수출 감소(18.6억 달러)로 인하여 부가가치는 14~15억 달러 정도 축소<sup>20)</sup>

○ 대중수출 감소로 인한 부가가치 감소의 75~80%는 대부분 무연탄(광업) 수출 감소로 인한 것으로 11억 달러 수준이며, 직물의류 제조업의 수출감소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는 1.3억~1.8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1차 산품인 농림어업, 광업 제품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74~0.90 수준으로 위탁가공업의 비중이 높은 직물의류 제조업(0.48~0.64)의 수준을 상회

〈표Ⅲ-1〉 북한 대중수출 변동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산업	북한의 대중수출액 변동 (백만달러)	부가가치 유발계수 <sup>1)</sup>			부가가치 변동(백만달러) <sup>2)</sup>			
		베트남 (2007 IO)	캄보디아 (2010 IO)	캄보디아 (2017 IO)	베트남 2007 IO 적용	캄보디아 2010 IO 적용	캄보디아 2017 IO 적용	
농림어업	△55.0	0.74	0.90	0.89	△40.7	△49.6	△49.1	
광업	△1,357.2	0.84	0.83	0.86	△1,144.9	△1,131.2	△1,166.6	
제조업	식료품	△143.3	0.64	0.77	0.72	△91.7	△109.9	△103.3
	직물의류	△280.5	0.48	0.63	0.64	△134.8	△178.1	△179.8
	목재, 종이	22.3	0.55	0.83	0.83	12.4	18.5	18.5
	금속, 기계, 장비	△84.6	0.35	0.67	0.71	△26.4	△60.1	△67.7
	기타	△1.0	0.49	0.59	0.46	0.4	0.3	0.3
전체	△1,899.2	0.69	0.60	0.61	△1,425.8	△1,510.1	△1,547.8	

주: 1) 베트남(2007년), 캄보디아(2010년, 2017년) IO를 토대로 시산

2) 북한의 대중수출액 감소에 베트남, 캄보디아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적용시 북한의 부가가치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검색일: 2020.3.26.), ADB <data.adb.org> (검색일: 2020.2.4.) 토대로 저자 시산

가되었을 경우 부가가치 감소분의 비중은 더 낮을 수 있음.

20)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위탁국가로부터 받은 가공수수료를 서비스수출로 기록하여야 하는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가공수수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직물의류의 최종재 수출액과 반제품 수입액의 격차를 가공수수료(2.81억 달러)로 간주하였음.

□ 대중수출 감소의 산업별 파급효과

- 대중수출이 감소한 주요 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면, 농수산물·무연탄·식물의류 수출감소가 여타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낮음.
  - 직접효과는 해당 산업부문의 부가가치 감소, 간접효과는 관련 산업부문의 부가가치 감소 효과를 의미
  - 베트남 2007년 산업연관표 적용할 경우 광업부문의 직접효과는 0.76, 간접효과는 0.08로 나타나는데, 이는 무연탄 수출이 1억 달러 감소할 때 광업부문의 부가가치는 7천 6백만 달러, 여타 산업부문의 부가가치는 8백만 달러 감소한다는 의미
- 이와 같이 1차 산품(농수산물·광산물)과 위탁가공상품(의류)은 북한경제 내 생산우회도가 낮아 여타 산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제한적
  - 단, 수출감소분이 내수로 전환될 경우, 직접적인 부가가치 감소도 제한적
  - 무연탄의 경우 수출중단 직후인 2017~2018년 중 재고물량에 한하여 내수전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의류의 경우 섬유 반제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분적으로 내수전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표Ⅲ-2〉 북한 대중수출 변동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직간접 효과<sup>1)</sup>

산업	베트남(2007 IO)		캄보디아(2010 IO)		캄보디아(2017 IO)		
	직접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농림어업	0.58	0.16	0.86	0.04	0.83	0.06	
광업	0.76	0.08	0.70	0.14	0.72	0.14	
제조업	식료품	0.16	0.48	0.29	0.48	0.29	0.44
	식물의류	0.30	0.18	0.52	0.11	0.48	0.16
	목재, 종이	0.30	0.25	0.44	0.39	0.43	0.40
	금속, 기계, 장비	0.18	0.17	0.53	0.14	0.52	0.19
	기타	0.26	0.22	0.32	0.27	0.28	0.18

주: 1) 각 산업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은 각각의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같음  
 자료: ADB <data.adb.org> (검색일: 2020.2.4.) 토대로 저자 시산

□ 대중수입 감소의 파급효과

- 대북제재 강화로 인하여 북한의 대중수입은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 대중수입 감소는 2015~2016년 수입액 평균과 2018~2019년 수입액 평균의 차이
- 대중수입 감소는 북한경제에 대한 공급 감소를 의미하는데, 수입품의 가공단계별·산업별 성격에 따라 공급 감소에 따른 파급효과가 나타남.
  - 소비자·자본재와 같은 최종재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북한 가계 및 기업의 소비와 투자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
    - 대북제재로 가전제품, 휴대전화의 수입이 중단되었는데, 이들 제품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시장거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중간재 수입 감소는 북한 각 산업에 대한 중간투입 부족을 의미하는데, 수입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중간재 수입에 따른 가동률 저하 등이 발생
    - 예를 들어 철강 중간재의 수입이 감소했을 때, 국내생산으로 이를 대체하지 못한다면 철강이 투입되는 모든 산업의 생산이 전반적으로 감소
- 북한산업의 수입중간재 배분구조가 비교대상국(베트남, 캄보디아)과 같다고 가정하고, 북한의 대중 수입중간재 의존도를 시산하면, 대중수입이 감소하기 이전에도 북한의 수입중간재 의존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교대상국(베트남, 캄보디아)과 북한의 산업별 부가가치율과 수입중간재 배분구조가 같다고 가정<sup>21)</sup>한 후, 각 국의 수입중간재 의존도(상품무역만을 고려)를 비교
  - 베트남(2007년), 캄보디아(2010년, 2017년)의 중간투입(intermediate input)에서 수입중간재(imported intermediate input)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4.7~32.8%

21) 부가가치율(value added ratio)은 부가가치/총투입이므로, 비교대상국의 부가가치율과 2017년 북한의 부가가치 (UN추정치)를 이용하여 북한의 총투입을 역산, 수입중간재 배분구조는 비교대상국의 구조를 그대로 적용

- 이들 국가의 산업별 부가가치율과 수입중간재 배분구조를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 대중수입중간재 의존도(수입중간재/중간투입)를 시산하면 평균 8.1~12.3%<sup>22)</sup>에 불과

○ 산업별로 보면, 광업·중공업·정부서비스업의 수입중간재 의존도는 크게 낮음.

- 특히 중공업의 경우 비교대상국들의 수입중간재 비중이 40%를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수입중간재 의존도(6.7~7.5%)는 매우 낮은 수준
- 중공업의 낮은 수입중간재 투입은 북한 중공업의 가동률 저하의 요인일 수 있음.
- 한편, 경공업, 기타서비스업 수입중간재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캄보디아의 수준을 상회<sup>23)</sup>

〈표Ⅲ-3〉 수입중간재<sup>1)</sup> 의존도

산업	비교대상국			북한 <sup>2)</sup>			
	베트남 (2007 IO)	캄보디아 (2010 IO)	캄보디아 (2017 IO)	베트남 2007 IO 적용	캄보디아 2010 IO 적용	캄보디아 2017 IO 적용	
농림어업	18.2	28.3	28.4	2.2	15.2	10.2	
광업	29.6	42.1	35.2	10.4	0.8	1.2	
제조업	경공업	17.6	27.8	28.3	9.9	26.0	25.8
	중공업	41.1	46.2	41.9	7.5	6.7	7.4
전기가수수도업	15.3	36.9	33.7	9.1	3.8	3.9	
건설업	39.9	44.7	33.7	8.1	18.3	21.6	
정부서비스업	15.5	17.2	19.8	1.9	4.1	3.5	
기타서비스업	20.4	18.8	15.5	15.4	23.2	18.8	
평균	24.7	32.8	29.6	8.1	12.3	11.6	

주: 1) 산업별 수입중간재(=각 산업에 투입되는 수입중간재 합계)/산업별 중간재 총액

2) 비교대상국의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북한에 각각 적용(수입중간재 규모는 북한의 2017년 대중수입액 기준)

자료: ADB <data.adb.org> (검색일: 2020.2.4.) 토대로 저자 시산

22)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포함할 경우 수입중간재 의존도는 5.5~12.2%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북중무역이 차지하고 있어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23) 경공업의 경우 위탁가공무역을 위한 반제품 수입으로 인해,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석유정제품 수입으로 인하여 수입중간재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북제재 강화 직후 수입중간재의 비중 변화

-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대중수입 중간재 감소는 약 1억 달러에 불과하여 북한의 수입중간재 의존도<sup>24)</sup>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전 산업 평균 0.2%p~1.2%p 감소).
  - 수입중간재 의존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은 수입 감소가 최종재(자본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 농림어업에 대한 수입중간재 투입은 오히려 증가(+0.6%p~+2.4%p)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북제재 강화 직후 식량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비료 등 농림어업 부분의 수입중간재 조달에 집중했을 개연성<sup>25)</sup>
  - 경공업의 경우에도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의 중간재 수입 증가액이 섬유류업의 중간재 수입 감소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중간재 의존도가 증가
  - 반면, 제조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부분의 수입중간재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중수입액 감소폭이 가장 컸던 중간재는 철강과 석유정제품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요가 큰 산업일수록 수입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 비교대상국의 수입중간재 배분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중화학공업과 건설업, 기타서비스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짐.
  - 대체로 철강은 중화학공업과 건설업에, 석유정제품은 농림어업·기타서비스업<sup>26)</sup> (석유정제품), 중화학공업 등에 투입되기 때문
  - 단, 석유정제품이 밀수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유정제품 수요가 높은 산업의 실제 수입중간재 감소폭은 이보다 작을 수 있음.

24) 이는 국내생산된 중간재 투입은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2018년 수입중간재 비중은 '2018년 수입중간재 투입/(2017년 국내중간재 투입+2018년 수입중간재 투입)'으로 시산됨.

25) 주로 기초화학물 제조업에 속하는 수입중간재의 투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6) 기타서비스업은 국내운송(inland transport)을 포함하여, 석유정제품의 중간재 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북한의 대중수입 중간재 감소를 베트남(2007년) 산업연관표의 수입배분구조에 적용할 경우,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수입중간재 의존도 감소는 중화학공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수입감소가 두드러진 중간재(철강, 석유정제품)에 대한 수요가 특히 제조업, 기타서비스업, 건설업에서 크기 때문
  - 베트남(2007년)은 캄보디아(2010년, 2017년)에 비해 중화학 공업의 수입중간재 배분비중이 높아(〈참고 1〉의 〈표 1〉참조), 중공업 수입중간재 의존도가 감소
- 북한의 대중수입 중간재 감소를 캄보디아(2010년, 2017년) 산업연관표 적용시 건설업과 기타서비스업 부문의 수입중간재 의존도가 감소
  - 캄보디아는 건설업의 철강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북한의 수입중간재 감소를 적용했을 때, 건설업의 수입의존도가 비교적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

〈표Ⅲ-4〉 대북제재 강화 전후 북한의 수입중간재<sup>1)</sup> 의존도

산업	베트남 2007 IO 적용			캄보디아 2010 IO 적용			캄보디아 2017 IO 적용			
	2016~2017년 (%)	2018~2019년 (%)	변동 (%p)	2016~2017년 (%)	2018~2019년 (%)	변동 (%p)	2016~2017년 (%)	2018~2019년 (%)	변동 (%p)	
농림어업	2.2	2.9	0.6	15.2	17.7	2.4	10.2	11.7	1.5	
광업	10.4	10.7	0.3	0.8	0.6	△0.2	1.2	0.7	△0.4	
제조업	경공업	9.9	10.5	0.5	26.0	26.1	0.1	25.8	26.4	0.6
	중공업	7.5	5.7	△1.7	6.7	6.7	0.0	7.4	7.8	0.4
전기가스수도업	9.1	9.8	0.7	3.8	3.8	0.0	3.9	3.8	0.0	
건설업	8.1	6.9	△1.2	18.3	9.6	△8.6	21.6	11.8	△9.8	
정부서비스업	1.9	2.2	0.3	4.1	4.4	0.3	3.5	4.0	0.5	
기타서비스업	15.4	14.1	△1.3	23.2	21.3	△1.9	18.8	16.7	△2.1	
평균	8.1	7.9	△0.2	12.3	11.3	△1.0	11.6	10.4	△1.2	

주: 1) 산업별 수입중간재(=각 산업에 투입되는 수입중간재 합계)/산업별 중간재 총액

2) 비교대상국의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북한에 각각 적용(수입중간재 규모는 북한의 2017년 대중수입액 기준)

자료: ADB (data.adb.org) (검색일: 2020.2.4.) 토대로 저자 시산

## IV 평가 및 전망

### □ 무역충격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 대북제재의 강화는 북한의 주요 수출 중단이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부가가치 감소를 유발하나 산업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
  - 수출 중단으로 인한 부가가치 감소는 14~1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북한 경제성장률 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임.
  - 수출이 급감한 1차 상품과 위탁가공 의류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생산감소가 관련 산업부문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
- 수입제재가 북한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농림어업과 경공업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입중간재 투입이 증가한 반면, 중화학공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에 대한 수입중간재 투입은 감소
  - 대북제재 직후 농업, 식료품 제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대북제재로 인한 철강, 석유정제품 수입의 감소는 중화학공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의 중간재 투입 감소로 이어져 해당 산업의 생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 □ 1990년대 초반 무역충격의 영향과의 비교

- 본고의 분석결과를 1990년대 초반의 충격과 비교하면, 대북제재 강화 이후의 무역충격은 특히 식량과 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산업 부문의 수입중간재 급감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음.
  -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무역충격은 1990년대 초와 마찬가지로 수출감소, 소득감소, 코크스, 철강 등의 중간재 공급 감소를 불러왔음.<sup>27)</sup>

27) 1990년대 초 구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무역충격은 수출감소를 통한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감소에 따른 승수효과, 중간재 공급 감소 효과를 통해 북한의 부정적 영향을 심화시킴.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실적과 전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pp. 232~260.

- 그러나 대중 원유수입이 대북제재 이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농림어업 및 경공업의 수입중간재 투입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sup>28)</sup>
- 또한,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했으나, 밀수형태로 들어오는 석유정제품 등의 공급을 감안<sup>29)</sup>할 경우, 수입중간재 의존도 하락은 본고의 분석결과보다 더 작을 수 있음.

#### □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전망

- 지금까지 대북제재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수출급감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생산활동 위축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음.
  - 광산물·의류 수출이 북한당국의 주요 외화소득원임을 감안할 때 수출급감에 따른 소득감소는 투자 및 정부지출 감소로 이어져 생산활동의 정체로 이어짐.
  - 또한,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외화보유액 감소는 중간재 수입 감소로 이어져 북한산업 전반의 가동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 북한경제통계 부족에 따른 연구의 한계

- 본고의 분석결과는 주요 가정의 적합성, 북한 경제통계의 부족 및 신뢰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출감소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수입중간재 의존도를 시산하였는데, 북한산업의 구조가 이들 국가와 상이할 경우 주요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북중무역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밀무역의 규모, 북한GDP 규모에 따라 주요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28) 1990년대 중반 농업생산의 위기는 비료 등 농업중간재 투입 감소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결과이기도 함.

29) 김경술, “북한 에너지부문의 동향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0), p. 135.

## 참고문헌

### 단행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8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9.  
이종석·최은주. 『제재속의 북한경제, 밀어서 잠금해제』. 세종연구소, 2019.

### 논문

김경술. “북한 에너지부문의 동향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0.  
김병연.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와 제재유용론.” 『이슈브리핑』. No. 22.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7.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실적과 전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이석. “총론, 2019년 북한의 거시 경제 평가와 2020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20.  
정형곤. “2019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 효과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0.  
최장호·최유정.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홍제한. “북중무역통계로 본 대북제재하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9.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Classification by Broad Economic Categories Rev.5.”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18.

### 통계자료

산업통계분석시스템(Industrial Statistics Analysis System: ISTANS)〈<https://www.istans.or.kr/mainMenu.do>〉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Asian Development Bank Data Library <<https://data.adb.org/>>

National Accounts Analysis of Main Aggregates <<https://unstats.un.org/unsd/sna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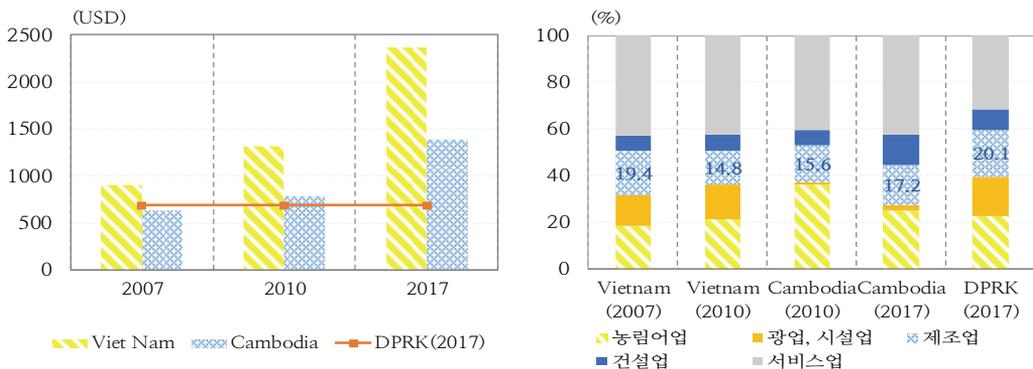
UN Trade Statistics <<https://unstats.un.org/unsd/trade/classifications/correspondence-tables.asp>>

〈참고 1〉

□ 북한과 베트남, 캄보디아의 경제여건 비교

- 북한의 2017년 1인당 소득은 696달러로 캄보디아의 2007~2010년(632달러, 786달러), 베트남의 2007년(906달러) 수준과 유사
  - 전체 경제규모(GDP)의 경우, 북한의 2017년 GDP는 173.7억 달러로 캄보디아(2010년 112.4억 달러, 2017년 221.8억 달러)에 더 가까움(베트남의 경제규모는 2010년 기준 1,159.3억 달러).
- 경제전체의 중간투입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의 경우, 북한의 2017년 제조업GDP 비중은 20.1%로 베트남의 2007년이나 캄보디아의 2017년과 유사함.
  - 캄보디아의 경우 광업·시설업의 비중이 북한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산업구조는 베트남의 2007년 수준과 가장 유사
- 1인당 소득, 경제규모, 산업별GDP 구성의 측면에서, 북한의 2017년 경제여건과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국(시점)은 베트남(2007년), 캄보디아(2010년, 2017년)로 판단됨.

〈그림 1〉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의 1인당 소득과 산업구조 비교  
[1인당 소득] [산업별 GDP 구성]



자료: National Accounts Analysis of Main Aggregates <<https://unstats.un.org/unsd/snaama>> (검색일: 2020.2.4.)

□ 베트남, 캄보디아의 수입중간재 배분구조 비교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작성한 베트남(2007년), 캄보디아(2010년, 2017년)를 토대로, 수입중간재가 산업에 배분된 비율을 시산하면, 제조업 부문의 배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세부 산업별 비중은 상이함.
  - 베트남(2007년)이 캄보디아(2010년, 2017년)에 비해 제조업 배분 비중이 더 높음.
  - 베트남은 중공업 부문에 배분되는 비중이 더 높고, 캄보디아는 경공업과 기타서비스업에 배분 비중이 더 높음.
  
- 따라서 북한의 수입중간재 규모에 어떤 비교대상국의 수입중간재 배분구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입중간재 의존도는 상이하게 나타남.
  - 북한의 산업별 수입중간재 규모에 비교대상국의 수입중간재 배분구조를 각각 적용
  - 베트남(2007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는 경우, 중공업에 대한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높게 나타남.
  - 캄보디아(2010년, 2017년)의 산업연관표를 적용하는 경우 경공업과 기타서비스업의 배분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표 1〉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수입중간재 배분구조<sup>1)</sup>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전기가스 수도업	건설업	정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베트남(2007년)	6.8	2.1	16.7	48.9	1.0	14.7	3.4	6.4
캄보디아	2010년	14.6	0.5	33.7	7.2	5.9	11.9	22.0
	2017년	10.5	1.0	36.4	7.0	5.6	16.1	19.0

주: 1) 수입거래표를 토대로, 수입중간재의 산업별 배분 비중을 시산한 것임.  
 자료: ADB <data.adb.org> (검색일: 2020.2.4.) 토대로 저자 시산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 <span style="float: right;">※도로명 주소 기입必</span>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KINU Insight 20-04

---

발 행 일 2020년 4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편 집 인 기획조정실 연구관리팀

홈 페이지 <http://www.kinu.or.kr>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

© 통일연구원, 2020